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김 광 희*

- I. 머리말
- II. 현상적 특징과 복장물
- III. 도상
- IV. 행사 작품의 양식과 제작기법
- V. 발원문의 시주자 분석
- VI. 맺음말

I. 머리말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에 위치한 甲寺(岬寺)는 통일신라 9세기 화엄십찰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시대 기록은 전무하나 조선시대에는 갑사, 鷄龍寺, 鷄龍岬寺¹, 岬士寺² 라는 사명으로 불리우며 사맥이 이어졌다. 조선전기 『세종실록』에는 선·교 양종 36개 사찰 중 선종 사찰로 기록되어 주목되고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충청도 공주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³ 조선후기에는 임진왜란시 활약한 승병장 靈圭大師(~1592)가 출가한 사찰로도 유명하며 양난으로 인해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¹ 『新增東國輿地勝覽』卷17, 忠淸道 公州牧 “(전략)[佛宇] 鷄龍岬寺 藤蘿寺 (중략) 栗寺 中心寺 東學寺 上院寺 俱在 鷄龍山 (후략)”

² 『(전략) 主上祝壽處時有無顏卽勸甲申夏巳月日公山東鷄龍山岬士寺大鐘新鑄成(후략)』(갑사 鐘記, 1584년)

³ 『世宗實錄』卷24, 世宗 5年, 4月 庚戌 “(전략)忠淸道公州鷄龍寺, 元屬田一百結, 今加給五十結, 居僧七十(후략)”

사찰이 피폐하여 1604년, 1654년에 걸쳐 대대적인 중창불사가 있었다. 李瀼(1691~1779)의 「유계룡산기」에는 충청우도의 으뜸사찰로 기록되어 당시 사찰의 규모와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1604년에 중건되어 1654, 1876년에 걸쳐 중수된 대웅전에는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과 四菩薩立像(이하 塑造三世佛像으로 약칭)이 봉안되어 있다.⁴ 이 작품은 17세기 대표적인 대형소조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불상이나 소조불상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지금까지 개별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⁵ 최근 과학적 조사와 보존수리 과정에서 불상의 재료를 비롯하여 제작시기, 제작자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갑사 삼세불상에 대한 조각적 특징과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⁶ 2015년 개금불사 과정에서 발원문을 비롯한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데⁷ 이를 통해 1617년(萬曆 17, 丁巳, 광해군 9) 10월 계룡산 갑사 불상을 완성하였고, 조각승 幸恩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간 행사는 覺敏의 차화승으로 활동한 행적만 알려졌으나⁸ 갑사 대웅전 불상의 발원문이 조사되면서 행사의 유일한 불상으로 밝혀져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본 논문은 갑사 대웅전의 소조불상에 대해 조각승 행사의 조형성과 제작배경 및 조각사적 의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불상의 현상적 특징과 복장물을 살펴보고, 칠존 형식의 도상, 행사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기법을 밝혀 조각사적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발원문의 시주자 분석을 통해 갑사 불상과 같은 거대 규모의 수작을 가능하게 한 배경도 밝혀보고자 한다.

4 공주 갑사 대웅전 불상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정명칭은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65호)이고, 현재의 문화재청 명칭 부여 기준으로는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으로 칭하는 것이 명료할 것으로 보이며 약칭으로 도상 중심의 '갑사 소조삼세불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5 갑사 대웅전 불상에 대해 도상과 양식적 분석을 통한 제작시기를 추론하였다.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23·224 (2002), pp. 95-138; 同著,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칠존불상 연구」, 『불교문화연구』 2 (2003.12), pp. 227-247.

6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불상의 재질 분석, 불상 내부조사 및 비파괴 안전진단, 불단 안전 진단 등의 조사가 이뤄졌고, 2015, 2016년 불상의 개금 및 불단 수리 공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복장유물 조사도 진행되었다. 공주시청·공주대학교,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의 재질분석 및 비파괴 안전진단』(2012); 공주시청·공주대학교,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불상내부조사 및 불단안전진단』(2013); 공주시청·(주)비산문화재·인디고문화재단,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보수정비공사 2015~2016』(2016).

7 불교문화재연구소, 『공주 갑사 대웅전 내 관세음보살입상 1구의 복장유물 조사 보고서』(2015), p. 29.

8 정은우, 「동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연구」,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 동학사·공주시·불교문화재연구소 (2012), pp. 122-135; 同著, 「동학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조각승 각민」,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p. 242-265 재수록.

II. 현상적 특징과 복장물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중앙의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 아미타불이 위치하고 그 사이에 각각 보살상 네 구가 시립하고 있다.(도 1, 2) 석가여래상의 높이는 268.9cm, 약사, 아미타는 각각 237, 246cm로 본존불상을 크게 조성하여 주존불임을 강조하였고, 네 구의 보살상은 규격이 상높이 230cm 안팎으로 대략 유사하다. 세 여래상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곧은 자세로 앉아 있는데 큰 규격, 작은 얼굴, 긴 상반신과 낮은 무릎, 측면이 납작한 마른 체형에 장대함이 돋보이는 비례가 특징이다. 턱으로 갈수록 좁아드는 방형의 얼굴은 넓은 미간, 기다란 눈매, 큼직하고 높은 코, 짧은 인중, 입술 끝을 살짝 올린 두툼한 입 등을 표현하여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열은 미소를 띤 부드러운 인상이다. 손모습은 석가여래상이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을 취하였고 나머지 두 여래상은 한 손은 설법인을 취하고 다른 한 손은 무릎 가까이에 둔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착의법의 경우 중앙의 석가여래상은 오른쪽 어깨를 덮은 변형편단우견식 대의를 착용하였고, 좌우 여래상은 편삼 위에 대의를 걸친 변형통견식으로 전형적인 조선 후기 여래상의 착의법을 보인다.⁹ 이들 여래상은 손모습과 착의법의 차이에 따라 옷자락 형태가



도 1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17년, 조각승 행사 (필자 촬영)
상높이 아미타여래상 246cm, 석가여래상 268.9cm, 약사여래상 237cm

⁹ 변형통견식 착의법은 오른쪽 팔에 편삼을 걸치고 그 위로 편단우견식 대의를 입어 형식에서는 변형편단우견식과 상통하지만 마치 통견으로 옷을 입은 것으로 보여 변형편단우견식과 구별하기 위해 변형통견식 용어를 사용하였



도 2 공주 감사 소조사보살입상, 1617년, 조각승 행사 (필자 촬영)
 상높이 228, 227.5, 229, 230cm (향좌① → 향우④)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옷주름은 대체로 유사한데 상반신이 직선적인 반면 무릎에는 세 줄의 평행 주름과 다리 사이 굴곡진 주름 등으로 변화를 꾀며 소조상의 양감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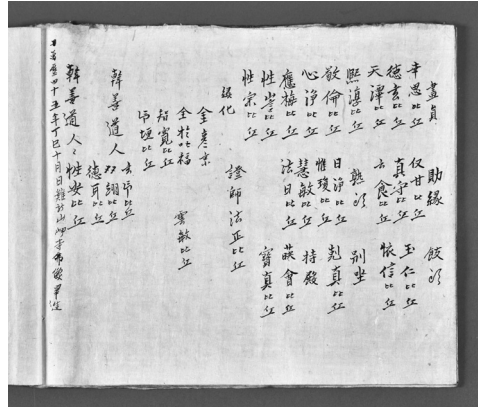
보살상은 입상으로 여래상과 비례, 얼굴, 옷주름 표현 등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2단의 원통형 건칠보관, 폭이 좁고 높은 상투와 긴 보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식과 손에는 여의와 연꽃가지를 들어 보살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이들 보살상의 착의법은 변형 통견식 착의에 밋밋한 직선과 입체감 있는 옷주름을 동시에 표현하였는데 두 구씩 대칭을 이루듯 하반신 군의 의 옷주름을 달리 나타내었다. 즉 군의 옷주름은 석가여래상의 좌측 보살상들은 세로형의 직선으로 내려오는 옷주름을, 우측 보살상들은 U자형으로 층계식의 늘어지는 주름을 표현하였다. 손 모습도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로 취하였다. 특히 보살상들이 쓴 보관은 동시기 보살상에 비해 정교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여 시선을 끈다. 보관은 1930년 日變이 만든 아미타불의 우측 보살상 보관을 제외하고¹⁰(도 2-1) 종이와 옷칠의 재료로 만든 건칠보관으로 상단은 넝쿨무늬를 세밀하

다.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1), pp. 57-58; 同著, 「고려후기 불교 조각 연구」(문예출판사, 2007), pp. 137-139 재수록.

¹⁰ 근현대기 조각승인 일섭의 『연보』에는 1930년 9월 10일 감사 대웅전 우보살상 보관을 신조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日變, 『年譜』(전략)24. 九月十日忠南公州甲寺大聖殿後佛連天峯神將大聖殿神將及大雄殿右菩薩花冠新造(후략))



도 3 갑사 보살상 복장유물(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도 4 갑사 대웅전 불상 조성발원문 18면(불교중앙박물관 제공)

게 투각하고, 하단은 연꽃과 넝쿨 등을 돋을새김 하였으며 화염보주, 봉황, 구름 등 별도로 세워 장식하였다. 또한 상단 테두리에는 백옥, 석류석 등의 보석을 감장하여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더하였다. 이는 여말선초의 전통적인 보관 양식을 따르면서 乾漆이라는 특수한 재료적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즉 갑사 대웅전 불상은 삼불 사보살의 칠존 형식, 마른 체형에 상반신이 길고 무릎이 낮은 길쭉한 신체비례, 직선적이고 밋밋한 옷주름과 양감 있는 옷주름의 공존, 보석이 감입된 화려한 2단 원통형 보관 등이 주된 특징이다. 신체비례와 착의법 등은 조선시대 불상의 보편성을 지녔지만 납작한 신체와 평면적인 상반신에 반하는 볼륨감 넘치는 하반신, 이마가 넓은 얼굴형, 건칠보관 등은 갑사 불상만이 지닌 특징이다.

갑사 불상은 1866년 개금 불사 이후¹¹, 최근 2015, 2016년에 걸쳐 개금불사 및 보존처리 과정이 있었으며 2015년 6월 개금불사에서 약사여래상 좌측에 위치한 보살상 1구에 대한 복장물 조사가 진행되었다.(도 2-4) 복장물은 발원문과 후령통을 비롯하여 오보병, 비단편과 목봉, 경전류 등 모두 16건 265점이다.¹²(도 3, 표 1) 대체로 조선시대 일반적인 복장물목을 따르고 있으며 복장물을 납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다란 목봉이 함께 봉안되어 흥미롭고, 11매의

¹¹ 갑사 보장각에 보관 중인 忠淸道鷄龍山岬寺佛像改金施主秩 현판은 불상이 봉안된 전각명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찰의 주존불상인 대웅전 불상의 개금시주기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 (2005), p. 36.

¹²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복장유물 조사내용을 기반으로 2017년 9월 본 연구자와 박광현선생의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복장물 조사 이후 복장전적은 박광현선생의 의견에 따라 수량과 제작시기 등을 정정하여 재정리하였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p. 29, pp. 55-65.

〈표 1〉 공주 갑사 보살상의 복장유물 목록

	명칭	시기	재질	수량	규격(cm)	비고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책	31.2×37.8	11매 18면
2	후령통	조선	비단 외	1점	높이 27.0	
3	오보병	조선	비단, 곡물	1점	14.5×7.2	
4	비단편	조선	비단	1점	38.0×58.0	
5	목부재	조선	나무	1점	길이 85.3	
6	백지묵서금강반야바 라밀경	1388년	종이	1첩	상하간 18.6	필사본
7	묘법연화경 권1-3	[1382년]	종이	1책	반곽 18.8×12.7	소자본계통
8	묘법연화경 권1-3	[16~ 17세기]	종이	1책	반곽 20.3×13.3	성달생서체 계통
9	묘법연화경 권3-4	[1405년]	종이	1책	상하간 21.3	안심사판 성달생서체 계통
10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종이	3매	반곽 20.5×13.4	성달생서체 계통
11	묘법연화경 권5-7	[1492년]	종이	1책	반곽 26.6×16.1	무량사판 초주갑인자본 계통
12	묘법연화경(날장)	[1573년]	종이	207매	반곽 24.6×15.9	쌍계사판 초주갑인자본 계통
13	묘법연화경 권4-5	[1555년]	종이	1책	반곽 25.5×19.7	광덕사판 을해자본 계통
14	대불정여래밀인수증 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 권6-10	[1433년]	종이	1책	반곽 22.2×14.2	화암사판
15	상교정본자비도량참 법 권8-10	1352년	종이	1책	상하간 25.4	
16	다라니(날장)	조선	종이	42매	전곽 19.8×38.2	

* [] 의 시기는 동일판본과 비교하여 추정한 것이다.

종이를 책 형태로 엮은 방대한 분량의 발원문도 보기 드문 사례이다. 복장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복장전적은 총 10종으로 필사본 1종과 목판본 9종으로 고려시대 1352년부터 16세기에 간행된 불교전적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서지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필사본인 1388년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은 권말에 寫成記를 수록하고 있어 정확한 필사 연대와 간경 경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수능엄경』(1433년 추정)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1352)은 묵서 구결이 수록되어 있어 중세 국어사 연구에도 중요하며 동일한 판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주목된다. 또한 『묘법연화경』은 소자본 계통, 성달생서체 계통, 초주갑인자 계통, 을해자 계통 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조선전기에 간행된 것이다. 특히 성달생서체 계열의 『묘법



도 5 공주 동학사 목조삼세불상, 1606년, 본존불상 110.5cm, 조각승 각민, 보물 제1719호 (필자 촬영)



도 6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 1614년(현재 소실), 조각승 각민(『朝鮮古蹟圖譜』13)

연화경』 권1-3의 『홍전서』에는 해남 대흥사 삼세불상의 수조각승으로 알려진 太顯이 판각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조각승과 각수의 관계 연구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발원문은 18면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1면에서 17면에 이르기까지 2300여명의 시주자 이름을 빼곡히 적었으며 마지막 장에는 제작과 관련해 소임을 맡은 31명의 인물군, 그리고 조성시기와 사찰명을 기록하였다.(도 4) 이를 통해 1617년 10월에 승려 360명, 속인 1974명 등 약 2300여명의 시주자가 동참하고, 수조각승 행사를 비롯한 덕현, 천담, 희순, 경운, 심정, 응매, 성은, 성종 등이 조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 행사는 수조각승 각민 아래에서 1606년 동학사 목조삼세불상, 현재 소실된 1614년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삼존상을 조성하였다.(도 5, 6, 표 2) 이외 1648년 조성된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에

〈표 2〉 조각승 행사의 불상 작품 목록

명칭	시기	규격(cm)	원 소장처	조각승
공주 동학사 목조삼세불상	1606년	석가 110.5	공주 淸林寺	覺敏, 覺心, 幸思, 休一, 德峯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불삼존상	1614년	미상	순천 松廣寺 (현재 소실)	覺敏, 幸思, 淸虛, 寶玉, 熙淳, 心淨, 應梅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상	1617년	석가 268.9	공주 岬寺	幸思, 德玄, 天潭, 熙淳, 敬倫, 心淨, 應梅, 性崑, 性宗

¹³ 『…畫貞』幸思比丘, 德玄比丘, 天潭比丘, 熙淳比丘, 敬倫比丘, 心淨比丘, 應梅比丘, 性崑比丘, 性宗比丘, 助緣, 仅甘比丘」

는 수화원 海心の 師翁으로 등장한다.¹⁴ 또한 행사는 같은 해 흥국사 무사전 지장보살상 조성
에 시주자로 등장하고 1655년 흥국사 응진당 삼세불상 조성에는 산중대덕으로 나타나고 있어
1640~50년대에는 조상활동을 하지 않고 여수 흥국사에 주석하며 여생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
다.¹⁵ 즉 갑사 불상 조성발원문은 행사가 우두머리 조각승으로 조성한 유일한 불상의 발견이라
는 점에서 중요하며, 2000명이 넘는 시주자 명단은 조선시대 불상 가운데 유례없이 방대하여 주
목된다. 그러나 발원문에는 불상을 조성한 배경이나 존상 명칭 등은 기록되지 않아 도상에 대
한 여러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II. 도상

갑사 대웅전 불상은 세 여래와 네 보살상으로 구성된 칠존 형식의 삼세불상이다. 현재 사
찰측은 석가, 약사, 아미타, 문수, 보현, 관음, 대세지보살로 신앙해 오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당
시 명칭이나 개설서, 불상 보고서 등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통칭되고 있다. 삼세불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시간적 개념의 삼세불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전기까지는 과거세 아미
타, 현재세 석가, 미래세 미륵이라는 시간적 삼세불이 조성되었으며¹⁶ 17세기 이후로는 시간적
삼세불이 공간적 삼세불로 이행되며 석가, 약사, 아미타로 구성된 삼세불상이 유행하였다.¹⁷ 갑
사 삼세불상은 1606년 동학사 삼세불상, 1612년 대흥사 삼세불상 등 동시기 불상들과 수인이나
착의법이 동일한데 이들 불상은 발원문을 통해 존상 명칭을 석가, 약사, 아미타불의 삼세불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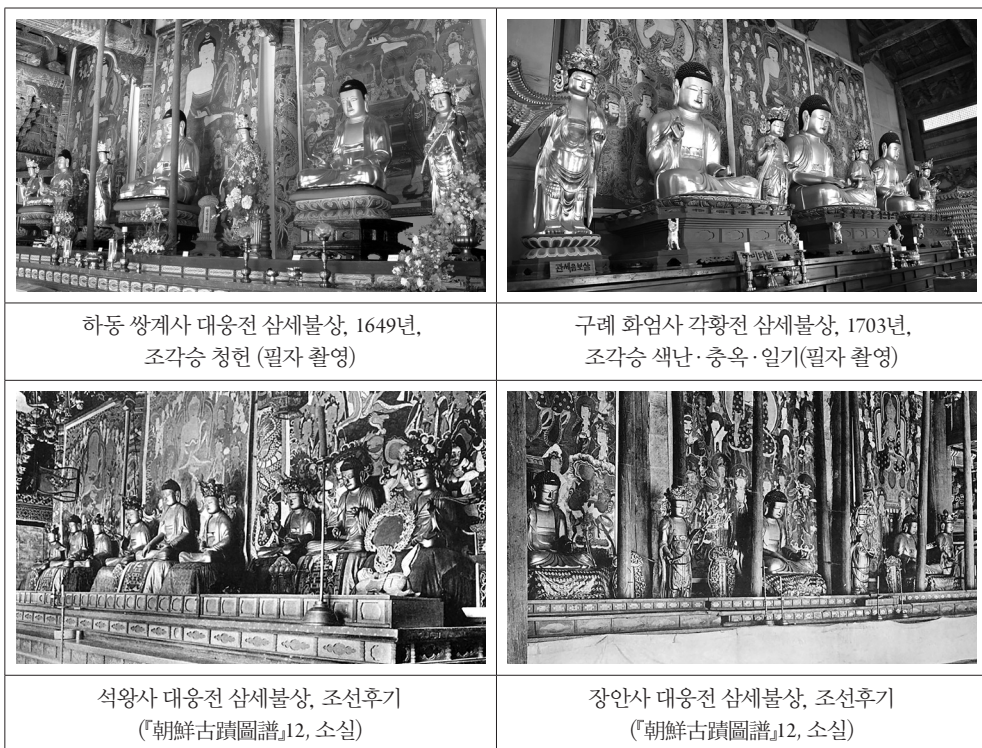
真守比丘,云舍比丘,熟頭,日淨比丘,惟瓊比丘,慧敏比丘,法日比丘,飯頭,玉仁比丘,信比丘,別坐,剋真比丘,持殿,
映會比丘,寶真比丘,證師,法正比丘,緣化,金彥京,全裕福,智寬比丘,印垣比丘,雲敏比丘,幹善道人,玄印比丘,双
翊比丘,德耳比丘,幹善道人,性安比丘,萬曆四十五年丁巳十月日雞龍山岬寺佛像畢造(갑사 불상 조성발원문 18
면, 김광희·이경주 석문, 송광사 고경스님 교감)

¹⁴ 『順治五年戊子春之始造夏之五月日既畢也…畫員秩,師翁幸思比丘,養師無染比丘,首畫員海心比丘…』(해남 도장
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성발원문)

¹⁵ 송은석,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9 (2008.2), pp. 293-294

¹⁶ 「…普光殿 殿內於間 設寶卓三蓮座 內中座靈山教主釋迦如來 爲昭座極樂導師阿彌陀佛 座穆座龍華會主彌勒尊
佛 彌陀乃過去佛 彌勒尊當來主 釋迦今現在主…」(《皇明朝鮮黃海道長淵府北松月山學林寺》, 1459년)

¹⁷ 삼세불 도상에 관해서 다음의 논고를 참조하였다. 정은우, 「敬天寺址 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2005);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9 (2008), pp. 91-118; 심주완, 「조선시대 三世佛像
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9 (2008.9), pp. 5-40.



도 7 조선후기 협시보살상이 배치된 삼세불상 비교

로 명료히 밝히고 있다.¹⁸ 또한 불상 뒤에 걸린 석가여래삼세불도(1731)의 도상이 석가, 약사, 아미타불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갑사 삼세불상의 여래상은 석가, 약사, 아미타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살상의 경우 우리나라 삼세불상 가운데 보살상이 함께 조각된 사례가 드물고, 현존 사례들도 그 형식과 도상이 일정하지 않다. 협시보살상을 배치한 조선후기 삼세불상은 갑사 불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고, 1639년 하동 쌍계사 삼세불상, 1703년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상, 그리고 사진으로만 확인되는 석왕사와 장안사 불상 등이 있다.(도 7) 이들 삼세불상 중 석왕사 불상이 유일하게 세 여래

¹⁸ 「維萬曆三十四年丙午二月日忠清道公州溪龍山靑林寺大雄殿佛像釋迦藥師彌陀極樂殿彌陀」(후략), 정은우, 「동학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조각승 각민」, 『정신문화연구』 35-4 (2012), p.248; 「時維皇明萬曆四十年歲次壬子八月十六日頭輪山大菴寺法堂堂主釋迦藥師彌陀三尊燒成腹藏記」(후략),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 조사보고서』(2013), p. 118.

와 여섯 보살로 구성된 사례이고¹⁹, 이외의 삼세불 협시상은 모두 네 구의 보살상만 구성되어 보살상은 선택적으로 도상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불상들의 존명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며 발원문을 통해 명확히 불상 명칭을 밝힌 작품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상이 유일하다.²⁰ 화엄사 각황전 불상은 석가, 다보, 아미타여래로 구성된 삼불상과 문수, 보현, 智積, 관음보살로 발원문을 통해 도상을 뚜렷이 명시하였는데²¹ 이는 영산회의식의 擧佛 절차와 관련된 도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²² 영산재가 성행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맥락에서 삼세불상의 도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갑사 삼세불의 협시보살상들은 지물의 경우, 석가의 좌측 보살상이 든 여의를 제외한 나머지 연꽃가지는 후보된 것이고 보관은 문양 구성이 유사하여 보살상의 도상 해석에 중요한 요소인 보관이나 지물 등을 통해서도 도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고려후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삼세불상과 보살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 작품 외에는 일관되게 문수, 보현보살이 등장하고 여기에 관음, 지장 또는 관음, 대세지가 표현된다.(표 3) 이러한 구성은 삼세불의 공통된 협시보살로 문수, 보현보살을 배치하면서 나머지 보살상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면서 당시 신앙적으로 유행했던 도상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갑사 불상과 가까운 시기에 조성된 원오의 위봉사 북암 불상(1605)은 사보살상 가운데 한 구를 승형의 보살상으로 표현하여 문수, 보현, 관음, 지장보살을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²³ 갑사상은 승형의 보살상은 확인되지 않아 관음, 지장보살의 배치로는 보기 어렵다. 갑사 대웅전 불상은 보편적인 조선시대 삼세불의 협시보살상 배치 기준으로는 석가여래상 좌우측 보살상은 문수, 보현보살로 판단되고 나머지 두 구는 관음, 대세지보살

19 『釋王寺法堂重修及六大菩薩金像造成記』에는 '석왕사 법당을 중수하며 대웅보전 내의 석가, 미륵, 약사 삼여래상의 좌우 날개와 같은 6대보살을 새로이 조성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여래상과 보살상의 조성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보살상의 존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20 하동 쌍계사 삼세불상은 석가, 아미타, 약사불로 구성된 삼세불과 일광, 월광, 관음, 대세지보살로 구성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이러한 조합의 근거는 약사불상의 좌우측에 서 있는 보살상의 보관 중앙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등근 보관 장식물이 확인되는 보관 장식과 정병 등의 지물을 통해 도상을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불의 우측에 서 있는 보살상 보관에는 원형 장식 위에 두루마리 형태의 장식물이 올려져 있어 '달'이 아닌 '경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 쌍계사 대웅전 보살상 도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21 오진희,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七尊佛像』, 『강좌미술사』 26 (2006), pp. 114-115.

22 정명희,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의 변용』, 『불교미술사학』 2 (2004), pp. 14-18; 同著, 『擧佛절차와 降臨의 시각화—來蘇寺 掛佛과 畫僧 天信』,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扶安 來蘇寺 掛佛幀』(통도사성보박물관, 2010), p. 14; 오진희, 위의 논문, pp. 119-120.

23 위봉사 북암 삼세불상의 삼불상은 소재를 알 수 없으며 완주 위봉사의 관음과 지장보살상, 그리고 익산 관음사, 해봉원에 각각 보살상 1구씩 봉안된 보살상들이 위봉사 북암의 사보살상으로 추정된다. 위봉사 관음, 지장보살상은 1989년 도난되었다가 2016년 회수되었다. 최선일, 『조선후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경인문화사, 2011), pp. 11-13.

〈표 3〉 고려~조선시대 삼세불상과 협시상 도상 구성

	명칭	도상 구성	시기	제작자	비고
1	경천사지 십층석탑 삼세불회	비로자나·약사(미륵), 아미타/ 문수, 보현, 아난, 가섭	1348년	원나라 장인	
2	친은사 금동불감	비로자나·약사(미륵), 아미타/ 문수, 보현	고려		
3	금강산 삼불암 삼세불	석가, 미륵, 아미타/관음, 대세지	고려		
4	송광사 고봉국사 금동불감	비로자나, 약사(미륵), 아미타/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아난, 가섭	여말선초		
5	태백산 상선암 불상	석가, 약사, 아미타/관음, 지장	1562~ 1563년		태백산 상선암기
6	완주 북암 위봉사 삼세불상	삼세/문수, 보현, 관음, 지장	1605년	元悟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 입상 조성발원문
7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상	석가, 다보, 아미타/문수, 보현, 지적, 관음	1703년	色難, 忠玉, 一機 외	발원문

상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²⁴ 그러나 약사 불 좌측 보살상의 보관 뒷면에 彌勒이라는 묵서명이 확인되어 흥미로우며 이에 따라 미륵보살상 반대편에 위치한 보살상은 제화갈라보살상으로 추정된다.²⁵(도 8) 즉 갑사 대웅전 삼세불상의 협시보살상은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라보살로 판단되며 이러한 도상의 조합은 현재까지 유일한데 이는 삼세불의 개념,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도 8 갑사 대웅전 보살상 보관 X선 촬영 사진(『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보수정비 2015-2016』, p. 107)

²⁴ 심주완 선생은 사보살상의 도상에 대해 모두 석가여래상의 협시로 추정하여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라보살 혹은 관음보살로 보는 가설과 보처불인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협시로 보았을 때 일광, 월광, 관음, 대세지보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심주완, 앞의 논문 (2003.12), p. 242.

²⁵ 보고서에서는 묵서명의 판독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상명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석가불 좌측 보살상의 보관의 X선 사진에서도 흐릿하게 묵서가 확인되나 이는 본 연구자도 판독이 어려웠다. 공주시청·(주)비산문화재·인디고문화재그룹, 『앞의 책』, pp. 107-113.

그러면 삼세불상의 협시보살로 문수, 보현보살과 함께 미륵, 제화갈라보살이 새롭게 등장한 배경은 무엇일까? 갑사 대웅전에 석가, 약사, 아미타여래상과 함께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라보살을 봉안한 것은 조선후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례이다. 흔히 조선후기 대웅전에는 석가, 약사, 아미타불의 삼세불상을 봉안하거나 석가불과 문수, 보현보살을 협시한 삼존불상, 그리고 드물게 석가, 미륵, 제화갈라보살의 삼존상을 모시기도 한다. 그러나 갑사 대웅전은 예외적으로 주존불인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협시로 배치할 수 있는 모든 불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이러한 도상의 조합과 배치는 조선후기 통합불교적인 성격으로 이해된다. 특히 석가의 협시보살인 미륵, 제화갈라보살의 새로운 등장은 『法華經』의 受記 사상과 관련된 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도상은 과거세 제화갈라보살, 현재세 석가, 미래세 미륵의 시간적 삼세불 개념의 삼존상으로 조선전기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17세기에 등장하여 나한전, 응진전, 영산전 불상으로 주로 봉안되었다.²⁶ 대표적인 사례로는 1624년 순천 송광사 응진전 석가여래삼존상이 있고, 대웅전에 봉안된 여수 흥국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상 등도 있으며 갑사 불상이 가장 이른 사례이다. 즉 갑사 대웅전에 봉안된 칠존 형식의 삼세불상은 시간적 삼세불 개념인 석가, 미륵, 제화갈라보살과 공간적 개념의 삼세불인 석가, 아미타, 약사불이 함께 배치하여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함의하는 삼세불상을 구현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도상 구성은 도상의 중복을 피한 효과적인 불상 배치이면서 삼세불상의 개념 확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중요하다.²⁷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불상과 불화로 시공간의 복합적인 삼세불을 구현해낸 범어사 대웅전이 있다. 범어사 대웅전은 시간적 삼세불상인 석가, 미륵, 제화갈라보살의 석가여래삼존상(1661)을 봉안하고 동쪽과 서쪽 벽에 약사삼존도(18세기)와 아미타삼존도(18세기)를 각각 그려 대웅전 전체를 시공간 삼세불이 공존하도록 조영하고 있어 갑사 불상의 도상 구성이 18세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²⁸

²⁶ 정은우,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 『역사와 담론』 65 (2013), pp. 493-495; 송은석, 『조선후기 불교 조각사』 (사회평론, 2012), p. 40, pp. 42-44.

²⁷ 갑사는 임진왜란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04년 사찰 중건 불사를 진행하며 우선적으로 대웅전과 진해당이 중건되었고 1649년, 1808년, 1899년, 1927년 등 여러 차례 중수와 증축과정에서 적묵당과 진해당, 대적전, 팔상전, 표충원, 대적선원 등 약 40여개의 부속전각이 갖추었는데 이러한 확장과정에서도 나한전이나 응진전은 건립되지 않았다. 이는 17세기 초 사찰 영건과정에서 이미 대웅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상을 배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²⁸ 박은경, 정은우 외, 『범어사의 불교미술』 (선인, 2011), pp. 119-128.

Ⅲ. 행사 작품의 양식과 제작기법

1. 양식적 특징







갑사 삼세불상은 긴 상반신과 낮은 무릎으로 장대한 신체비례, 마른 체형, 턱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드는 작은 얼굴에 큼직한 이목구비, 직선적인 단조로움과 볼륨감 있는 옷주름의 조화가 주된 특징이다. 또한 보살상에서 보이는 양 팔 아래로 길게 늘어져 바깥으로 뻗치는 대의자락, 보석이 감입된 2단의 원통형 건칠보관, 세 줄의 간결한 목걸이 등도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갑사 대웅전 불상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과 조각승 행사만의 작가적 특징을 알아보고, 행사와 그의 계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갑사 삼세불상의 비례나 착의법과 옷주름, 그리고 보살상의 보관, 목걸이 장식 등은 16~17세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작은 얼굴에 길쭉한 신체비례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여래삼불좌상 등 신체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16~17세기 전반기 불상들과 비교된다.(도 9) 갑사 여래상에 보이는 무릎 부분의 옷주름은 볼록하게 주름 잡혀 양감이 뛰어난데 이는 16세기 불상에도 보이는 특징으로 조선전기 양식을 계승한 것이고, 다리 부분의 층을 이룬 세 줄의 평행 옷주름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에 대체로 보이는 특징이다.(도 10) 그리고 갑사 보살상의 팔 아래로 길게 늘어뜨려 다리 양 옆으로 뻗치는 옷자락 역시 16~17세기 보살상에도 나타나는 시기적 특징이라 하겠다.(도 11) 또한 보살상의 보관은 조선전기의 보살상들과 닮아있다.²⁹ 조선전기

				
갑사 소조석가여래좌상, 1617년	왕룡사원 소조석가여래좌상, 1579년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상, 16세기	대흥사 소조약사여래좌상, 1612년	승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14년

도 9 16~17세기 불상 비례와 착의법 비교

²⁹ 김광희, 「16세기菩薩像 연구」, 『문물연구』 14 (2008), pp. 116-117.

	
갑사 소조석가여래상, 1617년, 행사	기림사 소조아미타여래상, 16세기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상, 1606년, 각민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상, 1605년, 원오
	
대흥사 소조약사여래상, 1612년, 태진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상, 1614년, 현진

도 10 16~17세기 불상 옷주름 비교

			
갑사소조문수보살입상, 1617년, 행사	안동 서약사 건칠보살입상, 1567년	익산 해봉원 목조보살입상, 1605년, 원오	순천 송광사 목조제화갈라 입상, 1624년, 응원

도 11 16~17세기 보살상 옷주름 비교

대표적인 불상인 파계사 건칠보살상의 보관은 2단의 원통형으로 상단부는 넝쿨무늬를 조각하고 하단부는 연꽃, 구름, 봉황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가장자리에는 화염무늬로 꾸미고 보석을 감입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이러한 형태미와 더불어 보석감입 방법 등은 갑사 보살상의 보관과 닮아 있어 갑사 보살상의 보관은 전통적 조형미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614년 구례 천은사 보살상의 보관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갑사 보살상들의 목걸이 장식은 수식이 세 줄 늘어선 형태로 간결한데 이 역시 기림사 보살상 등에 나타나는 16세기 특징으로 17세기 초기까지 이어진다.



도 12 각민과 행사의 작품 비교

갑사 삼세불상은 이러한 시기적 보편성과 함께 수조각승으로 밝혀진 행사의 작가적 특징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행사는 조각승 각민 아래에서 동학사 목조삼세불상, 송광사 목조비로자나삼존상(소실) 등을 조성한 차화승으로 등장하여 각민이 제작한 불상과의 비교가 필요하다.³⁰(도 12) 각민과 행사의 불상은 낮은 무릎의 신체비례, 각진 어깨, 이마가 넓은 얼굴형, 직선

³⁰ 정은우, 앞의 논문 (2012), pp. 242-265.

적인 옷주름 그리고 마른 체형 등 상당부분 닮았다. 보살상 표현에 있어서도 구불거리는 긴 보발이라든지 지물을 든 손모습, 하반신 옷주름 형태와 양감 등이 유사하다. 비례나 착의법, 무릎의 세줄 평행선 주름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적인 특징이나 평면적이고 납작한 상반신, 넓고 각진 어깨, 왼쪽 어깨 위 대의나 소매자락의 굴곡, 외이도를 뚜렷하고 간결하게 새긴 귀 등은 동시기 조각승들과 구별되는 각민, 행사의 공통된 조형성이다. 이러한 조형성은 익산 승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14)에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어 승림사상 역시 각민, 행사 계보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민과 행사는 차이점도 분명히 드러난다. 각민의 작품에 비해 행사의 갑사 불상은 상반신이 길쭉하고 무릎은 상당히 넓어 압도적인 장대함이 돋보인다. 또한 각민의 삼세불상은 세 구 모두 일자형 승각기나 대의 옷주름 처리 등이 대체로 유사한데 행사의 세 여래상은 승각기와 무릎 위 늘어진 옷자락, 다리 사이 옷주름 등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직선적인 상반신 옷주름에 비해 하반신은 풍부한 양감을 드러내어 평면성과 입체감을 동시에 구현해내었다. 또한 두 조각승은 얼굴 표현에서 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각민의 불상은 가름한 턱, 반개한 눈의 뚜렷한 이목구비가 입체적인 세련미를 연출했다면, 행사의 불상은 턱선이 각지고 넓은 미간과 기다란 눈매, 짧은 인중으로 평면적인 특성과 함께 투박한 친근미가 있다. 즉, 행사는 전체적인 조형성은 각민의 영향을 받았으나 신체적인 장대함, 밋밋함과 볼록한 양감의 공존, 평면적인 얼굴, 특히 눈머리를 아래로 깊게 누른 눈 표현 등은 행사만의 기량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함께 갑사 삼세불상을 조성한 차화승, 그리고 행사의 계보 범주에 포함되는 조각승의 작품 비교이다. 갑사 불상 조성에 동참한 차화승은 덕현, 천담, 희순, 경윤, 심정, 응매, 성은, 성종 등이다. 이들 차화승 가운데 이후 수화승으로 작품을 남긴 인물은 응매가 유일한데 1650년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상은 시기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고, 얼굴이나 비례, 착의법과 옷주름 등 행사의 갑사상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인다.(도 13) 또한 희순은 각민과 순천 송광사 작품을, 1656년 無染과는 완주 송광사 나한전 목조석가삼존상을 조성하였다. 심정 역시 각민의 순천 송광사 작품에 동참하고, 이후 應元의 차화승으로 1624년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 아미타여래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행사와 합



도 13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 1650년, 조각승 응매 (정은우 제공)

계 순천 송광사 목조비로자나불상의 차화승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어 갑사 불상 조성시에 동참하였고, 주로 순천 송광사를 거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차화승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름을 올린 성종도 갑사 불상 동참 이후 응원의 순천 송광사 광원암 불상 조성에 참여하고 있어 행사 아래에서 작품활동을 함께 한 그들의 활동영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행사의 사맥은 해심의 불상 발원문에서 행사, 무염, 해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해심이 행사를 師翁으로, 무염을 養師로 밝히고 있는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48)은 비례나 얼굴, 착의법 등이 갑사 불상과는 확연히 다르다.³¹(도 14)



도 14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48년, 조각승 해심 (불교문화재연구소 제공)

발원문 화원질의 가장 윗부분에 행사를 기록하고 있어 도장사 작품을 행사가 제작하였다는 의견도 있다.³² 그러나 해남 도장사 불상은 갑사 불상과 30여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양식적으로도 유사성이 없으며 해심의 다른 작품들과 보다 닮아 있어 행사가 아닌 해심의 작품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사는 무염, 해심의 작품과 공통점을 찾기 어렵고 행사와 무염이 함께 조성한 작품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행사와 그들의 영향관계를 명료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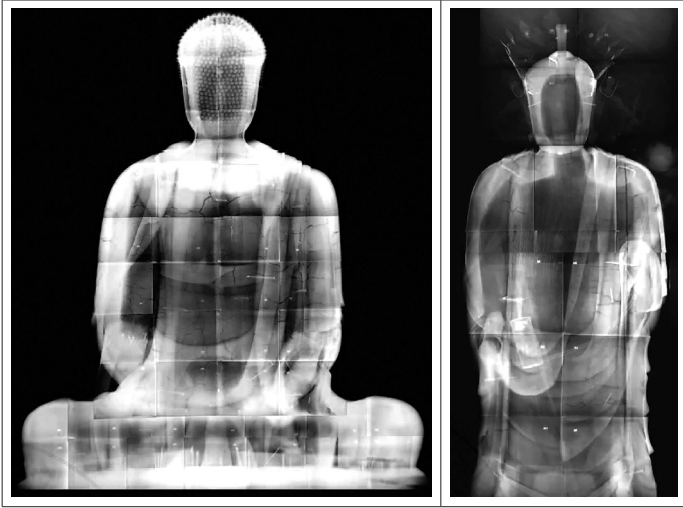
2. 제작기법

갑사 대웅전 삼세불상은 흙으로 형상을 마무리한 대형의 소조불상이다. 1929년 11월 갑사 대웅전 불상 도난사건에 대한 기록에는 대웅전 불상을 목불로 적고 있어 당시에는 목조불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³³ 그러나 갑사 대웅전 석가여래좌상 뒷부분 좌측면에 흙덩이가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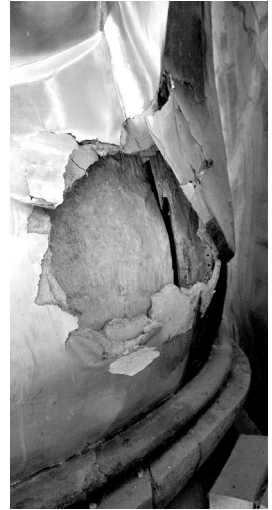
³¹ 해심은 실제 무염의 차화승으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해심이 수조각승으로 조성한 영광 불갑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의 발원문에도 무염을 '養師'라고 밝히고 있어 해심은 그가 조성한 불상 작품의 발원문에 그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해심이 행사를 '사옹'으로 적은 의미 역시 작품의 실제적 조성자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담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³² 송은석 선생은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상 및 보살상의 조각승을 행사라고 밝히고 있고, 문명대 선생은 도장사 불상을 무염의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송은석, 앞의 논문, p. 292;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pp. 22-23.

³³ 『동아일보』 1929년 11월 28일 기사 「木佛을 흙처가 [공주]지남십팔일오전네시경에 충남계룡산갑사대웅전(鷄龍山



도 15 갑사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소조문수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공주시청·공주대학교,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의 재질분석 및 비파괴 안전진단』(2012))



도 16 갑사 소조석가여래좌상 뒷면 좌측면(정은우 제공)

되면서 불상을 만든 재질이 드러났고, 최근 감마선 및 X선 촬영, 소조토 분석 등의 과학적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작기법 역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목심을 세우고 목심 바로 위에 1~4cm 가량 비교적 얇게 흙을 덧붙이는 기법으로 제작하여 자연건조시킨 목심소조불상이다. 감마선촬영 사진을 보면 얼굴을 제외하고 몸체만 소조층의 균열이 확인되고, 내부는 검게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속이 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도 15) 골격을 이루는 목심은 여래상의 경우 머리 부분과 몸통, 양쪽 팔, 하반신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러 조각의 목재를 ㄷ자형 거멸못으로 연결하였다. 보살상도 여래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몸통 부분 목재는 가운데 목재의 좌우로 늘어진 대의자락을 포함한 목재판을 결합시켜 세 개의 목재로 목심을 짜맞추었다.³⁴ 그리고 석가여래상의 훼손된 부분에서 확인되듯, 목심은 외형과 유사하게 곡선을 이루며 깎아 내었고, 목심 위에 바로 흙을 부착하였다. 또한 손 부분은 나무로 별도 제작하여 끼웠다.(도 16)

甲寺大雄殿)에 있는 목불을 어떤자의 소행인지 절취하여 갖슴으로 그 절 승녀들은 경찰에 고발하여 각방으로 수사중이러는데 그 부처는 건조한지가 삼백년이나 된것이라더라。」

³⁴ 갑사 소조삼세불상의 목심 구성은 감마선촬영이 측면까지는 이뤄지지 않아 앞면의 사진만을 판독하여 목심의 구성과 짜임에 대해서 언급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소조토는 사찰 인근의 소토와 동일성분의 흙을 정제하여 사용하였고, 흙 자체의 점력을 높이기 위해 보강재로 소나무껍질을 사용한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³⁵ 이처럼 흙 보강재로 소나무껍질을 사용한 것은 송진을 통해 흙의 점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토층의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⁶ 조선후기 소조불상 가운데 흙 보강재로 소나무껍질을 사용한 예는 갑사 불상이 유일하고, 갑사 불상과 같이 목심 위로 새끼줄 등을 감지 않고 흙을 바로 부착하는 방식은 17세기 소조상 가운데 3m를 넘지 않는 규격의 불보살상에서 흔히 나타난다. 대체로 두께가 1~5cm 안팎으로 비교적 얇은 특징을 보인다.³⁷

이러한 갑사 소조불상의 목심소조기법은 조선전기 소조불 제작기법과는 다르다. 조선전기 소조상의 대표적 사례인 무위사와 기림사 불상과 비교하면 이 두 작품은 감마선 촬영에서 목심이 거의 드러나지 않듯 소조층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 무위사상은 머리, 몸, 오른팔, 하반신으로 이루어진 목심을 세우고 그 위로 두텁게 흙을 부착하였고 목심 외면은 층을 이루듯 거칠게 쪼아 표면에 바르는 흙의 부착력을 높였다.³⁸ 이러한 조선전기 목심은 17세기 갑사나 대흥사, 귀신사 등의 소조상에서 보이는 여러 조각의 나무를 연결시키고 불신과 유사한 형태로 깎아 만든 목심과는 다르다.³⁹ 갑사 불상의 목심 형태는 오히려 16세기 목조상에 소조토를 전체적으로 발라 조형을 마무리한 방법과 유사하다.⁴⁰ 즉 갑사 불상은 내부를 비우고 목조상과 같은 형태의 목심을 세워 비교적 얇은 소조를 바를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소조불상의 단점인 중량감을 줄이고, 흙의 박리, 박락에 따른 훼손을 나무의 경질성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각 소량의 나무와 흙을 사용하여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용성이 높아서 대대적인 사찰 재건이 이뤄진 17세기에 매우 적합한 불상 제작법이라 하겠다. 한편 흙 보강재로 건조시간이 긴 소나무껍질을 사용한 점은 행사가 제작한 갑사상만의 독창성이다.

다음은 보관의 제작기법이다. 갑사 보살상의 보관은 근대에 제작된 아미타불상의 우측 보살상을 제외하고 모두 종이와 옷으로 만든 건칠 보관으로 상당히 주목된다.(도 17) 앞은 2개의

35 공주시청·(주)비산문화재·인디고문화재그룹, 앞의 책, p.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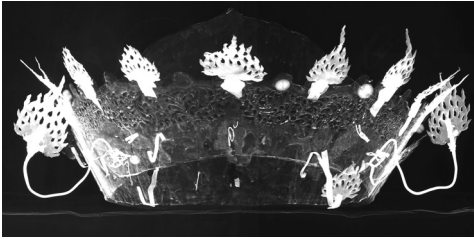
36 실제로 불상의 옷칠 및 도금기법을 연구하는 이윤주 선생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 갑사 불상 개금 과정에서는 건조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소나무껍질 대신 유사 재료인 숯을 사용하였다. 위의 책, p. 46.

37 김광희,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p. 172, 〈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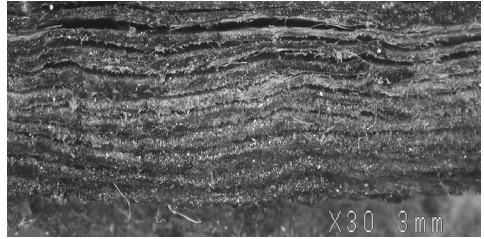
38 김광희, 위의 논문, pp. 170-173.

39 이수에는 대흥사 소조불상의 제작기법을 논하며 이러한 불신과 유사한 형태로 깎아 만든 목심을 사용한 불상에 대해 인체형 구조의 소조불상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이수예,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文化財』 47 (2014), p. 168-175.

40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 (2013), pp. 96-98.



도 17 갑사 미륵보살상의 보관 X선촬영 사진(『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보수정비공사2015~2016』, p. 127)



도 18 갑사 보살상의 보관 단면 현미경 촬영 사진(『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보수정비공사2015~2016』, p. 119)

판, 뒤는 1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서로 연결시켜 부착하였다. 상단은 넝쿨무늬를 세밀하게 투각하였고 아랫단은 연꽃이나 넝쿨 등을 돋을기법으로 양감있게 조각하였다. 상단 테두리와 앞면에는 화염보주, 구름, 봉황 등을 판에 구멍을 뚫어 끼워 장식하였으며 화염보주는 리셋형태로 단단히 고정하였다. 또한 테두리에는 백옥, 석류석 등의 보석을 돌출형 테두리인 난집을 만들고, 그 내부에 보석알을 넣은 후 접착재료로 부착하였다. 보관의 단면을 살펴보면 건칠임이 확연히 드러나며 보관 본체는 15겹, 장식은 10겹 가량의 종이와 옷칠로 두께를 형성하였음이 확인된다.⁴¹(도 18) 고려부터 조선전기까지 유행한 건칠불은 17세기 이후 제 작되지 않는 점에서 갑사 건칠보관은 거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어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관을 건칠로 제작한 작품도 현재로는 유일하다 하겠다. 즉 보살상 보관을 고가의 재료인 건칠로 제작한 점은 갑사 불상 조성에 기울인 정성과 수준, 그리고 조각가 행사의 독창성 등에서 주목된다.⁴² 그리고 행사는 제작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나무와 흙, 건칠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었던 흔치 않은 조각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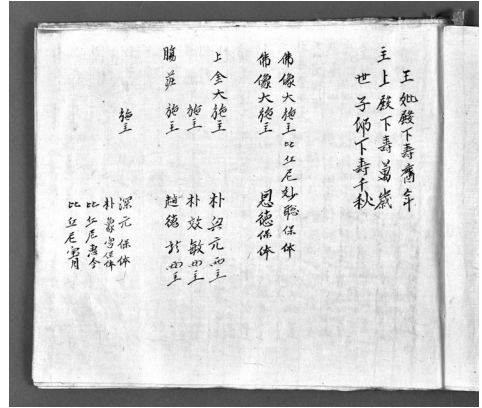
V. 발원문의 시주자 분석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갑사 사적비 등에 조성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보살상 내부에

⁴¹ 공주시청·(주)비산문화재·인디고문화재그룹, 앞의 책, pp. 118-119.

⁴² 조선전기 15세기에는 불상 제작에 있어 보관을 별도의 전문장인이 조성한 기록이 있으나 조선후기는 불상 제작 분업체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조선후기 불상 제작에는 수조각승의 역할 비중이 높아 갑사 보살상의 보관 역시 행사의 역량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충식, 『景泰七年 佛像腹藏品에 對하여』, 『考古美術』 138·139 (1978), p. 48.

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대웅전이 1604년 중건된 이후 1617년에 완공되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성발원문은 크게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준 승려 360명, 속인 1974명 등 2300여명의 시주자 명단과 실제적으로 불상 제작과 관련된 소임을 맡은 31명의 승려 명단이 기록되어 있으며 시주자는 佛像, 上金, 腹藏, 面金, 木材 등 구체적 시주 물목을 명시한 시주자와 일반 시주자층으로 나뉜다.



도 19 감사 불상 조성발원문 1면(불교중앙박물관 제공)

발원문의 첫 장 첫머리에는 三殿下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아홉 명의 시주자가 등장한다.⁴³(도 19) 불상대시주자로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된 이는 비구니 妙聰이다. 감사 불상에 시주자로 동참하는 360명의 승려 가운데 비구니는 묘충, 혜금, 보월 등 3명뿐이지만 발원문 서두에 비구보다 비구니를 먼저 비중 있게 기록하여 이례적인데 막강한 힘을 가진 비구니 인물들로 불상 조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구니는 서두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왕실 관련 인물이 아닌가 한다. 이 같은 비구니의 등장은 당시 시대상황 및 감사가 충청도지역을 대표하는 대찰인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임진왜란시 활약한 승병장 영규대사의 등장도 주목되며 감사에서 출가한 승려이다.⁴⁴

다음으로 주목되는 인물들은 1604년 감사 중건시 활동한 인물인 印浩, 性安, 學連, 敬淳 등이다. 성안은 발원문 18면에 불상 제작 소임을 맡은 명단에서 간선도인으로 기록되었고 나머지는 시주자로 등장한다. 이는 감사 불상이 1604년 감사 대웅전 재건 이후 대웅전 봉안을 목적으로 동일 인물들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玄眞, 明隱, 天敏, 玉明, 法旻, 應元, 信玄 등 1610~20년대 활약한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등장한다.⁴⁵(표 4) 현진과 명은은 1612년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4년 구례 천은사목

⁴³ 「主上殿下壽萬歲」王妣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佛像大施主比丘尼妙聰保体」佛像大施主思德保体」上金大施主 朴因元两主」施主 朴效敏两主」腹莊施主 趙德龍两主」施主 深元保体」朴象宮保体」比丘尼惠今」比丘尼宝月」(감사 불상 조성발원문 1면)

⁴⁴ 「…天淳比丘」命日比丘」靈圭比丘」玄眞比丘」唯正比丘」明隱比丘…」(감사 보살상 조성발원문 6면)

⁴⁵ 감사 불상의 시주자로 등장하는 조각승은 감사상과 동시기 조성된 1600~1630년대 불상들의 발원문과 비교분석하였다. 송은석, 『앞의 책』, pp. 376-421;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佛敎彫塑』(양사재, 2007).

〈표 4〉 갑사 보살상 조성발원문에 등장하는 조각승 명단

승명	작품과 역할	활동 지역
현진	1612년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수화원 1614년 구례 천운사 목조관음, 대세지보살상 수화원 1626년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수화원 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수화원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상 수화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명은	1612년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1614년 구례 천운사 목조관음, 대세지보살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전라도
천민	1629년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경상도, 충청도
옥명	1622년 서울 자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미상
법령	1615년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차화원 (수화원 태진) 1629년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수화원	전라도
응원	1615년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차화원 (수화원 태진) 1622년 서울 자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차화원 (수화원 현진) 1624년 순천 송광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수화원 1624년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수화원 1628년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수화원	전라도
신현	1605년 김해 선지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차화원 (수화원 원오) 1605년 완주 위봉사 북암 사보살상 차화원 (수화원 원오)	전라도

조관음대세지보살상 등을 함께 조성한 조각승이고, 천민은 현진 아래에서 1629년 창녕 관룡사 삼세불상, 1633년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삼존상 등을 조성하였다. 옥명 역시 현진이 주도한 왕실 발원 불상인 서울 자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의 제작에 동참한 조각승이다. 법령과 응원은 1615년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 제작에 태진의 차화승으로 등장하여 1620년대 수조각승으로 활발히 조상활동을 하여 계보를 형성한 인물들이다. 법령은 1629년 군산 은적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을 조성한 인물이고, 응원은 순천 송광사 응진전 불상(1624), 송광사 광원암 아미타불상(1624), 송광사 소조사천왕상(1628) 등 송광사 불사를 주도한 조각승이다. 신현은 원오의 차화승으로 김해 선지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05), 완주 위봉사 북암 사보살상(1605) 등을 조성하였다. 한편 금산사 재건을 주도한 守文 대사도 확인되어 주목되며 1606년 동학사 삼세불상 조성에 시주자로 등장하는 印天和 智崇, 대흥사 중수 및 1612년 대흥사 삼세불상 조성시 시주자로 이름을 올린 雪菴 등의 이름도 확인된다. 즉 이 갑사 삼세불상의 조성에 참여한 360여명의 승려 집단은 갑사 본사의 승려 뿐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집단과 대사찰의 승

려들이 참여하고 있어 당시 감사 불사의 규모와 사찰의 위상을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이례적인 대규모 승속 집단의 동참은 조선시대 충청도지역 중심사찰이었던 감사의 사적, 첫머리에 등장한 비구니 묘충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발원문에도 등장하는 승병장 영규대사가 공주 감사 출가승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구니 묘충과 관련하여 전하는 기록이 전무하고 영규에 대한 행적과 지위는 잘 알려져 있다.⁴⁶

騎虛堂 영규는 공주 사람으로 감사로 출가하여 공주 감사 청련암에 주석하며 수도하였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지역에서 최초로 승군을 모아 청주성을 수복하였으며 그해 8월 금산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충청, 전라지역을 지킨 그의 업적은 『조선왕조실록』에도 거듭 언급되고 있으며 선조 25년 지중추부사로 추증되었고 1647년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 제향되었다. 이후 영규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며 감사 표충원, 밀양 표충서원이 건립되었고 지금도 충청지역에서는 영규에 대한 추모제를 지내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감사 삼세불상의 구성에 충청, 전라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과 승려들의 시주가 이어지는 것은 영규대사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1617년에 조성된 조각승 행사의 불상으로 조선후기 불상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르고 압도적인 장대함이 돋보이는 대형 소조불상이다. 이 불상은 납작한 신체 표현이나 평면적인 상반신에 반해 양감있는 하반신이 독특하며 세 여래상과 네 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칠존 형식도 주요한 특징이다. 본 연구는 감사 불상의 도상을 재검토하여 석가, 약사, 아미타의 삼세불과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라보살의 조합이라는 가설을 밝혔다. 이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함의하는 삼세불상으로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도상 조합이며 조선시대 삼세불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수 있어 중요하다.

감사 소조삼세불상은 행사가 우두머리 조각승으로 처음 등장하는 유일한 불상으로 그 의미가 크다. 행사는 17세기 보편적인 양식과 함께 사승관계로 추정되는 각민의 영향을 받았으며,

⁴⁶ 이장희,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pp. 19-24.

나무, 흙, 건칠의 다양한 재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등 뛰어난 조각승으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발원문의 시주자분석을 통해 승병장 영규대사를 비롯한 충청, 전라지역의 조각승과 승려집단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시 갑사 불사의 규모와 사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미진한 면은 추후 보완 연구할 것이며 앞으로 조각승 행사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주제어(key words)_갑사(甲寺, Gapsa Temple), 삼세불(三世佛, The Buddhas of Three Worlds[Realm, Time]), 소조상(塑造像, Clay Statue), 행사(幸思, Sculptor Monk, Heangsa), 각민(覺敏, Sculptor Monk, Gakmin), 영규(靈圭, Monk, Yeong-gue)

■ 투고일 2018년 9월 7일 | 심사개시일 2018년 9월 17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0월 6일 ■

참고문헌

1. 사료

『世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宣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2. 한국어 문헌

공주시청·공주대학교,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의 재질분석 및 비파괴 안전진단』, 2012.

공주시청·공주대학교,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불상내부조사 및 불단안전진단』, 2013.

공주시청·(주)비산문화재·인디고문화재그룹,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 보수정비공사 2015-2016』, 2016.

국립중앙박물관, 『화엄사의 불교미술』, 2010.

김광희, 「16세기 菩薩像 연구」, 『문물연구』 14, 2008.

_____,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불교미술사학』 18, 2014.

류경석,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의 재질특성 및 비파괴 손상도 평가」,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문명대,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_____, 「석준(釋俊), 원오(元悟)파의 성립과 논산 쌍계사 삼세불상(1605년) 및 복장의 연구」, 『강좌미술사』 36, 2011.

문화재청, 「2010년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2010.

_____, 「2011년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 기록화사업 결과보고서」, 2011.

박민현, 「미륵의 명호와 미래불로서의 사상적 기반」, 『정토학 연구』 27, 2017.6.

불교문화재연구소, 『공주 갑사 대웅전 내 관세음보살입상 1구의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2015.

(사)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 조사보고서』, 2013.

송은석, 「17세기 전반 曹溪山 松廣寺와 彫刻僧: 覺敏, 應元, 印均」, 『보조사상』 29, 보조사상연구원, 2008.2.

_____, 「17세기 無染派의 造像 활동」, 『역사학연구』 40, 2010.

_____, 『조선후기 불교조각사—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2012.

심주완, 「壬辰倭亂 이후의 大形塑造佛像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23·224, 2002.

_____,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칠존불상 연구」, 『불교문화연구』 2, 2003.

_____, 「조선시대 三世佛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9, 2008.

어준일, 「조선 전기 16세기 불교조각 연구」, 『불교미술사학』 16, 2013.

- 오진희,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강좌미술사』 26, 2006.
- 이수예,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삼세불상을 통해 본 17세기 조선시대 불상의 제작기법 연구」, 『文化財』 47, 2014.
- 이용윤, 「삼세불의 형식과 개념 변화」, 『동악미술사학』 9, 2008.
- 이장희,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 대한 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3.
- 이희정,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淸憲」, 『불교미술사학』 3, 2005.
- _____,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출판사, 2013.
- 정명희,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的 變容」, 『불교미술사학』 2, 2004.
- _____, 「舉佛절차와 降臨의 시각화-來蘇寺 掛佛과 畫僧 天信」, 『통도사성보박물관 괘불탱 특별전 扶安 來蘇寺 掛佛幀』, 통도사성보박물관, 2010.
- 정은우, 「敬天寺址 10層石塔과 三世佛會考」, 『미술사연구』 19, 2005.
- _____, 「동학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조각승 각민」, 『정신문화연구』 35-4, 2012.
- _____,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연구」, 『역사와 담론』 65, 2013.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2, 1932.
- _____, 『朝鮮古蹟圖譜』 13, 1933.
- 최선일,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佛敎彫塑』, 양사재, 2007.
- _____, 「17세기 전반기 조각승 원오의 활동과 불상 연구」, 『17세기 彫刻僧과 佛像 研究』, 경인문화사, 2009.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주 갑사 대웅전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四菩薩立像(약칭 '갑사 소조삼세불상')을 면밀히 고찰하여 칠존 형식의 도상, 조각승 후원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기법, 그리고 조성배경과 조각사적 의의를 재조명한 글이다.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1617년에 조성된 조각승 행사의 불상으로 조선후기 불상 가운데 시기적으로 이르고 장대함이 돋보이는 대형 소조불상이다. 이 불상은 납작한 신체 표현이나 평면적인 상반신에 반해 양감 있는 하반신이 독특하며 세 여래상과 4구의 협시보살상으로 구성된 칠존 형식도 우리나라에서 드문 사례로 주요한 특징이다. 갑사 불상의 칠존 형식에 대해 이전 시기 삼세불의 협시상 구성과 보살상 보관에 목서된 '彌勒'명을 토대로 도상을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갑사 삼세불상은 석가, 약사, 아미타의 삼세불과 문수, 보현, 미륵, 제화갈라보살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시공간적 개념을 함의하는 삼세불상으로 이전 시기와 다른 새로운 도상 조합이며 조선시대 삼세불의 변화양상과 그 배경을 살펴 볼 수 있어 중요하다.

또한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행사가 수조각승으로 처음 등장하는 유일한 불상으로 밝혀져 그 의의가 큰데 그의 양식적 특징과 제작기법을 상세히 다루었다. 행사는 긴 상반신과 낮은 무릎의 신체비례, 착의법과 옷주름, 보살상 보관, 목걸이 등에서 16세기 양식의 계승과 17세기 보편적인 양식이 나타난다. 또한 사승관계로 추정되는 覺敏의 영향을 받아 이마가 넓은 얼굴형, 각진 어깨, 마른 체형 등을 표현하였으며 각민이 귀족적이고 입체적인 얼굴을 표현한 반면 행사는 평면적이고 넓적하며 친근감 있는 표정의 얼굴을 조형하였다. 한편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사 소조불상이 여러 목재를 연결한 목심 위에 흙을 바른 목심소조기법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혔으며 유례 없는 건칠보관의 제작기법에도 주목하였다. 즉 행사는 나무, 흙, 건칠의 다양한 재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등 뛰어난 조각승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발원문에 등장하는 승려 360명, 속인 1974명 등 2300여명의 대규모 시주자를 분석하여 상당히 높은 신분으로 추정되는 비구니 妙聰과 갑사 출신의 승병장 靈圭를 비롯한 충청, 전라도 지역의 조각승과 승려집단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갑사 소조석가여래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당시 갑사 불사의 규모와 사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Four Standing Bodhisattvas in Daeungjeon Hall of Gapsa Temple

Kim, Gwanghee*

This study analyses in detail the iconography of seven Buddhas and bodhisattvas, the style and production technique of the monk sculptor Haengsa, and the context of production and art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Clay Seated Sakyamuni Buddha Triad and Four Standing Bodhisattvas in Daeungjeon Hall of Gapsa Temple (Hereafter, the Clay Buddhas of Three Worlds in Gapsa Temple).

The Clay Buddhas of Three Worlds in Gapsa Temple are the works of the monk sculptor Haengsa, made in 1617. They are clay-made sculptures of monumental size and are early examples of Buddhist sculpture from late Joseon. The contrast of the flat upper body and the voluminous lower body is distinctive and the scheme of three Buddhas and four bodhisattvas is rare to find. The iconography of seven Buddhas and bodhisattvas have been understood as a variation of the Buddhas of Three Worlds and attending bodhisattvas, as the name “Maitreya” is written on the crown of a bodhisattva. Consequently, the three Buddhas are assumed to be the Buddhas of Three Worlds, namely, Sakyamuni, Bhaisajyaguru, Amitabha, and the four bodhisattvas, Manjusri, Samantabhadra, Maitreya, and Dipamkara. The concept of the Buddhas of Three Worlds encompassing all space and time, is an original iconography that displays the changes of three Buddhas and its context in the late Joseon period.

This Buddha triad is also the only work that names Haengsa as its main sculptor in the letter of

* Connaisseur of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ayer found inside the sculpture.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technique are also examined in detail in the study. Haengsa favored a long torso and flat knees in his sculptures, whose vestments and drapery, and the crown and necklace of the bodhisattvas combined the traditions of the 16th century and the new style of the 17th century. The sculptures also show the influence of Gakmin, a monk sculptor assumed to be Haengsa's teacher, in its wide brow, angular shoulders, and slender body. However, whereas Gakmin's facial features are more pronounced and aristocratic, Haengsa's Buddhas have more friendly, flatter, and wider faces. As for the production technique, scientific research reveals that clay was put over cores made by joining several pieces of wood. The technique of lacquer used on the crown is also remarkable. In conclusion, Haengsa was an exceptional sculptor who had command over different materials such as wood, clay, and lacquer.

Lastly, the letter of prayer lists the names of over 2,300 donators-360 monks and 1,974 laymen. The names include female monk Myo-chong, apparently of a high status, monk Yeong-gue from Gapsa Temple who led an army of monks, and monk sculptors and monks from Choongcheong-do and Jeolla-do Provinces. This is significant as they are indicative of the importance of the temple and the Buddhist works.